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0/14(水)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0/13(火) 11:00부터**

문의 : 유통산업팀 엄성용 팀장(6050-1490, 010-5226-1430), 강민재 과장(6050-1513, 010-2612-6194)

소매유통경기 회복 되나 ... 4분기 유통업체감지수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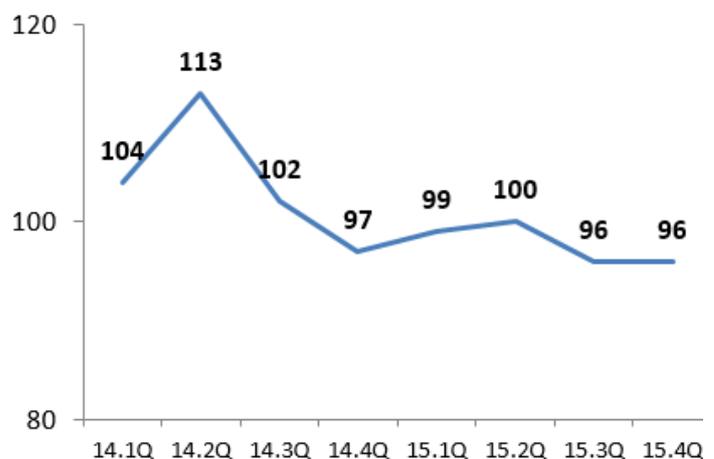
-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15 3Q 96 → '15 4Q 96
- 홈쇼핑(120), 인터넷쇼핑(108) 호황 ... 편의점(87), 슈퍼마켓(90), 백화점(91)은 부진

4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체별로는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서울 및 6대 광역시 944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전망치가 지난 분기와 동일한 '96'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미만이면 반대다.

<그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대한상의는 “추석 대목에 이어 코리아그랜드세일·블랙프라이데이 등 대형 이벤트로 10월 유통경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많다”며 “그러나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과 금년

내 미국 금리인상 전망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소비심리 회복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업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종합	116	125	119	105	101	105	103	98	87	98	105	101	104	113	102	97	99	100	96	96
인터넷쇼핑몰	102	122	118	109	108	114	114	103	105	115	113	105	104	111	112	111	108	106	108	108
백화점	104	124	114	134	96	107	109	102	95	109	113	108	117	122	100	99	101	104	90	91
대형마트	134	129	109	105	103	97	87	87	76	82	98	92	108	112	97	91	96	98	96	93
홈쇼핑	131	131	130	102	115	139	134	138	77	104	104	148	106	126	120	126	118	96	87	120
편의점	72	118	125	112	105	105	112	98	81	93	105	90	86	104	100	90	88	95	96	87
슈퍼마켓	95	114	111	96	91	97	103	96	83	94	97	106	83	101	96	85	88	94	99	90

업태별로는 계절적 특수를 맞은 홈쇼핑과 인터넷쇼핑의 호황이 예상된다.

홈쇼핑(120)은 동절기 특수와 급성장하는 모바일 쇼핑시장 덕에 전분기 대비 33포인트 오른 119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쇼핑(108)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솔로이코노미(Solo Economy) 확산과 배송·포장 기술발달로 인한 신선식품 구매가 늘며 호조가 예상된다.

백화점(91)은 중국 국경절(10월 1~7일) 기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해 전 분기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상승요인이 10월 한달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큰 폭으로 오름세를 기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 3분기 선전했던 슈퍼마켓(90)과 편의점(87)은 동절기 진입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음료·아이스크림 등 주력품목의 매출 감소로 4분기 부진이 예상된다. 이밖에 대형마트(93)는 업태 내 경쟁 심화가 매출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4분기 예상되는 경영애로 요인으로 유통기업들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41.7%)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수익성 하락’(23.9%), ‘업태간 경쟁 심화’(11.8%), ‘인력 부족’(4.5%) 등을 차례로 들었다. <유통관련 규제강화> 4.0%, ‘업태내 경쟁심화’ 3.7%, ‘자금사정 악화’ 1.4%, ‘상품가격 상승’ 1.2%, ‘기타’(7.8%)>

김경중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개별소비세 인하, 내수활성화 이벤트 등으로 10월 유통업 경기는 회복국면을 보이겠지만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반짝 회복세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유통업체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 불황 타개를 위한 실속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내수부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9/1(화)~9/21(월)
- 조사업체 :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 소매유통업체 944개사(회수율 79.9%)
- 조사지역 : 전국 7대 도시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팩스